

警友新聞

발행처: 大韓民國在鄉警友會
(우: 100-789)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2234-1881 FAX: 2231-7557
발행인: 具 弘 壹 편집인: 玄 誠
등록번호: 문화다05675

(www.ex-police.or.kr)

警友會, 新堂洞 時代 開幕

警友들의 휴식공간 「사랑방」 開設

경우회 중앙회가 오는 1월 10일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안전공단 新館 4층으로 그 보금자리를 移轉한다.

경우회는 지난 12월 9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우회원들의 휴식공간인 사랑방 개설과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중앙회 사무실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한편 기타 당면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취임후 첫 이사회를 주재한 구홍일 회장은 『중앙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 경우회원들의 만남의 장소 겸 휴식공간인 사랑방 개설과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면서 참석 理事들의 동의를 구했다. 이날 이사회는 경우회 중앙회 사무실 이전 보증금 6억원을 기금에서 사용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사무실 이전 및 지역 경우회의 경우의 날 행사비 증액 지원 등 재정지출 요인의 증가에 따른 내년도 예산수정안을 의결했고, 기흥골프장 문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변경 등 당면현안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경우회 중앙회 사무실 이전 문제는 구홍일 회장 취임이후 중앙회 사무실을 교통이 편리한 도심권으로 이전하여 회원들이 쉽게 찾아와 소식을 전하고 정담을 나누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날 移轉을 결의하게 됨으로서 지난 63년

중구 명동 2가 32번지에 첫 사무실을 마련한 이래, 67년 4월 중구 입정동 소재 삼성빌딩으로, 동년 11월 중구 수표동 청소년회관으로, 74년 4월 종로구 내자동 무궁화회관을 거친후 지난 87년 6월 현재의 서울 은평구 녹번동 청사에 입주한 이래 18년만에 다시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안전회관으로 동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경우회는 녹

번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당동 시대라는 새역사의 場을 열고 보다 편리한 여건 속에서 조직발전을 기하고 회원들을 위한 경우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전 장소로 확정된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안전공단은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2,6호선 신당역 중간에 위치

해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교통이 불편하여 중앙회의 방문을 망설였던 경우들의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회원들의 경우회 활동 참여 분위기의 확산은 물론 조직 운영분위기 쇄신으로 새 시대에 걸맞는 경우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경우회관 早期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직 수뇌부들은 최근 오찬간담회를 갖고 경우회 발전 및 현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警友會 발전 및 現職 지원방안 論議

前·現職 首腦部 간담회 개최

구홍일 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우회 회장단, 그리고 최기문 경찰청장을 비롯한 현직 수뇌부들이 지난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하립각에서 전현직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우회 발전 및 현직 경찰 지원,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위 사진)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구홍일 회장은 인

사말을 통해 『경우회는 현직 경찰의 후원 조직이지만 창립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生動하는 경우회로 탈바꿈해 현직 후배들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 될 것이니 만큼 현직 후배들도 경우회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다시 그 힘을 바탕으로 前現職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홍일 회장은 『現職에서 경우회는 우리 조직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고 전제하되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의 일부 지역을 순회 방문했는데, 전현직 警友들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았다』면서 『내년초부터 다시 나머지 지역을 방문해 전현직 유대강화와 경우회 발전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기문 경찰청장도 『오늘 오찬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조직

발전에 대한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린다』고 언급하는 한편 『경우회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경우회는 지난 1월 3일 乙酉年 새해를 맞아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 원로 警友, 수도권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한편 시무식을 갖고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신년인사회 : 1월 18일(화) 15:00 도로교통안전공단 신관 3층

新任 경찰청장에 허준영 서울청장 內定 국정원 2차장에는 이상업 경찰대학장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



이상업
(국정원 2차장)

지난 12월 27일 최기문 경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 후임으로 허준영(53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되었다.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 12월 29일 경찰위원회 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13일경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가 끝나는데로 정식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허준영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내외무고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치안총수 자리에 올라 우리나라 치안의 총책임을 맡게 됐다. 허 청장 내정자는 외시 14회에 합격해 지난 84년 경찰에 입

력 성향에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며,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후대전화 변호를 공개할 정도로 개방적인 성격에 유머감각까지 갖춰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부인 강경애(49세)씨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과 독서이다.

한편 국가정보원 2차장에는 이상업(57세) 경찰대학장이 취임했다.

이상업 2차장은 행정 13회 출신이며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경찰내외에서 참모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덕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내 핵심보직인 정보와 수사, 보안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해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순위 차남인 문화상 의원의 인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다.

경찰내 연쇄살인 사건, 프로야구 선수 병역비리 사건, 대입 수능부정 사건 등 굵적굵직한 사건들을 무리없이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

국정원 2차장에는 이상업 경찰대학장이 취임했다. 이상업 2차장은 행정 13회 출신이며 합리적이고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경찰내외에서 참모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덕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내 핵심보직인 정보와 수사, 보안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해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순위 차남인 문화상 의원의 인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다. 경찰내 연쇄살인 사건, 프로야구 선수 병역비리 사건, 대입 수능부정 사건 등 굵적굵직한 사건들을 무리없이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

경찰병원, 최첨단 암진단 장비 PET-CT 도입 경찰관 50% · 警友 25% 費用 할인 혜택

경찰병원이 최근 早期 암 진단용 최첨단 장비인 PET-CT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각종 암의 조기 발견 및 그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PET-CT는 기존의 CT나 MRI보다 성능이 우수하여 CT, MRI 등의 암진단이 인체 내의 조직적 변화 이후에나 발견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생리적 변화과정에서 微細 암의 조기진단 및 암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PET-CT의 도입으로 경찰병원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병원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선진 진료서비스 기반의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회원, 경찰관, 전·

의결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PET/CT 활용 수가

활용대상별 내용별	일 반 인	경찰관 · 병원직원 (50% 감면)	퇴직경찰관 (25% 감면)	경찰관 · 병원직원가족 (20% 감면)
전신	80만원	40만원	60만원	64만원
뇌	60만원	30만원	45만원	48만원
전신 + 뇌	95만원	47만 5천원	71만 3천원	84만원

1월의 예정 행사

- ◆ 신년 인사회
 - 일시: 1월 18일(화) 15:00
 - 장소: 도로교통 안전공단 신관 3층
- ◆ 경우 신약회
 - 일시: 1월 20일(목) 10:00
 - 장소: 도봉산

警友 휴식공간 「사랑방」 운영

도심권에 위치한 중경철정사인 도로교통안전공단 신관으로 移轉하여 회원들이 쉽게 찾아와 정담을 나누며 하나가 되기 위한 만남의 장소 「사랑방」(40명 규모)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부담없이 찾아와 휴식과 오락(바둑, 장기, 컴퓨터 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前現職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중지를 모아 120만 회원의 숙원이며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경우회관을 마련합니다.



이전 장소

◇주소: 우. 100-789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도로교통안전공단 신관 4층

전화:

• 대표전화: 02-2234-1881(ARS) • 참전경찰 유공자회: 02-2231-2147
• 사무처: 02-2231-2143~6 • 여경회: 02-2231-2148

팩스:

• 회 장 실: 02-2231-2442, • 사무처: 02-2231-7557

※ 찾아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6호선 연결) 신당역(3번 출구), 상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 147, 263, 302, 371, 0211, 1211, 1216, 2012, 2014, 2015, 6211번 이용해 도로교통안전공단 역 하차

약도

